

20세기 전반의 미일 관계에서의 인종·이민 문제와 일본인 이민

- 태평양연안 일본인회협의회를 중심으로 -

니시무라 히데유키 (주오대학)

1. 머리말

러일전쟁 직후를 기점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우호의 시대'에서 '대립의 시대'로 변천하게 되는데¹⁾, 재미 일본인 이민에 대한 배일운동이 격화되면서 외교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도 러일전쟁 이후였다.

이후 배일운동이 처음으로 미일 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06년 샌프란시스코 학동격리 사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인 이민의 토지 소유가 제한된 1913년의 이른바 제1차 배일토지법,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한 1920년의 제2차 배일토지법, 그리고 일본인의 미국 이민이 전면 금지된 1924년의 이른바 배일이민법 등 배일운동은 이어졌고 그때마다 일본인 이민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그 대처에 골머리를 앓았다. 또한 배일운동은 반이민의 측면과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는 이를 인종·이민문제라고 표현하겠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인종·이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인 이민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북미에 거주했던 일본인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영향력도 컸던 태평양 연안 일본인회협의회(이하 연안협의회)의 활동을 주로 검토해 나간다.

미일 간에 존재했던 배일 문제의 연구로, 미노하라 도시히로는 '주 차원'에서 일어난 배일운동에 직접 개입이 어려웠던 미일 양국 정부의 고뇌와 노력을 상세한 검토를 통해 그려냈다²⁾. 아즈마 에이이치로는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주지(미국 등)에 관해 일본은 배일운동을 피할 필요성에서 원주민 및 선행거주자의 배제가 아닌 공존과 동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일본형 정착민 식민주의'라고 하며 이 관점에서 일본인 이민의 이민사를 다시 파악하였다³⁾.

이번에 다루는 연안협의회에 대해, 사카구치 미쓰히로는 〈지방일본인회-연락일본인회-연안일회〉라고 하는 일본인 이민 내의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하였다⁴⁾. 아직 이 연구에서는 연안일회가 당시 일본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중국적 문제⁵⁾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연안협의회라는 조직에 대해 상술한 사카구치 연구에서 개설이나 그 활동의 일부는 밝혀지고 있지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카구치 연구 이후로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연안협의회가 외무성에 보낸 일본의 이민 법규에 관한 개정 건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연안협의회 활동과 조직의 방침·사상 등을 밝힌다.

1) 이리에 아키라, 「미일 적대 의식의 원천」, 『국제정치』 34호, 1967, 1쪽.

2) 미노하라 도시히로, 『배일이민법과 미일관계』, 이와나미서점, 2002, 미노하라 도시히로 『캘리포니아주의 배일운동과 미일관계 이민문제를 둘러싼 미일 마찰, 1906~1921년』, 유희카쿠, 2006.

3) 아즈마 에이이치로, 『제국의 프런티어를 찾아서 일본인의 환태평양 이동과 정착민 식민지주의』, 나고야대학 출판회, 2022.

4) 사카구치 미쓰히로, 『일본인 미국 이민사』, 후지출판, 2001, 159쪽.

5) 이중국적 문제는 미일 양국의 국적제도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중국적 상태가 된 일본계 2세가 배일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다(사카구치, 전제서, 273~274쪽).

2. 태평양연안 일본인회협의회 개요

여기에서는 연안협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금 확인한다. 북미에서의 일본인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일본인회'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본인 이민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조직되는 일본인 이민자들의 상호 조직이다. 북미의 증진·지위 향상·미국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⁶⁾.

두 번째는 '중앙일본인회'다. 이것은 미국 국내에 설치되어 있던 6개의 일본영사관 관내에 산재한 '지방일본인회'를 통솔·연락하기 위해 조직된 '지방일본인회'의 연합조직이다. 미국의 '중앙일본인회'는 6개가 존재하였다. 또 캐나다에는 캐나다 일본인회(밴쿠버 영사관 관내)가 '중앙일본인회'로서 존재하고 있다⁷⁾.

연안협의회는 재미일본인회·북미연락일본인회(후에 미국서북부연락일본인회로 개칭)·오리건주일본인회(후에 오리건주연락일본인회로 개칭)·캐나다일본인회라는 4개의 '중앙일본인회'에 의해 1914년에 설립된 일본인회의 연합조직이다⁸⁾. 제3차 협의회부터는 남가중앙일본인회가 추가되어 5개의 '중앙일본인회'로 구성되었다⁹⁾.

매년 원칙적으로 한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제1회 연안협의회는 1914년 7월 15일에 열렸으며, 이후 1929년 제16회까지 개최되었다¹⁰⁾. 설립 목적으로 제1회 협의회의 좌장을 맡은 오리건주일본인회의 반 신사부로는 협의회의 첫머리에서 “대표자 개최의 동기에 의해 각지 동포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동시에 친목적으로 어떤 공통 사건을 논의하고자 함에 있다¹¹⁾”라고 하였다. 또 제1회 협의회에서 제정된 '태평양일본인회협의회 회칙'에서는 제2조에서 “본 회의 목적은 체류 동포에 관한 공통 문제를 연구 해결하는 것에 있다¹²⁾”라고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협의회는 일본인 이민의 현안이던 배일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일본 이민법규 개정과 연안협의회

연안협의회는 매년 협의회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귀화권 획득 소송 지원, 배일운동에 대한 비판 결의, 2세의 교육 방침에 대한 것 등, 많은 논의를 펼치고 있었다¹³⁾. 본 보고에서 다루는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¹⁴⁾'에서 보는 일본의 이민법규에 관한 연안협의회의 활동은 1917년에 개최된 제4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일본이민보호법 개정'에 관한 건¹⁵⁾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이민보호법 개정'에 관한 건'은 재미일본인회가 맡아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제4차 협의회에서는 ①이민보호법 정신의 개량, ②이민행정기관 완비를 도모하는 것, ③이민보호에 '실천적 주도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 ④이민 관련 사립단체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6) 「(주미 일본인 문제에 관해 시애틀 마쓰미 다이하치 씨로부터 제출된 서면사)」 (「재외거류민단(회) 관계잡건」, 외교사료관 소장, 3.8.2.336)

7) 동상.

8) 사카구치, 전게서, 150-151쪽.

9) 「제삼회 태평양연안일본인회협의회 의사록」 (『태평양연안일본인회협의회 의사록』, 『Japanese American Research Project Collection of material about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1893-1977』,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VE611-1·Reel 36), 40쪽.

10) 『주미일본인사』, 주미일본인회, 1940, 647쪽.

11) 「제1차 태평양연안일본인회협의회 의사록」, 전게서, 5쪽.

12) 「제1차 태평양연안일본인회협의회 의사록」, 전게서, 10쪽.

13) 사카구치, 전게서, 152~153쪽

14)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 (「제국 이민법규 관계 잡건 별책 참고자료」 외교사료관 소장 3.8.1.12-1)

15) 「제4차 태평양연안일본인회협의회 의사록」, 전게서, 76쪽.

⑤병역·국적에 관한 규정 밝힌다, ⑥이민기금을 설립한다, ⑦이민법의 세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7가지 관점을 정리한 것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의안이 통과되었다¹⁶⁾.

이것이 실제로 제출된 형태가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이다. 1918년 7월에 수기로 작성된 것이 1919년 5월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을 인쇄물로 정리한 것도 1919년 7월에 제출되었다.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민보호법 개정을 호소하며, 개정 모델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예로 들었다. 이민보호법은 1896년에 성립된 법률인데, 이는 당시 주류였던 이민취급인이라는 알선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1894년까지는 하와이로 가는 관약이민이 주류였지만, 그 후에는 이민취급인(개인/회사 두 패턴이 있다)을 통한 도항이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악덕업체 등이 급증한 결과 이를 감시·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민보호법이 제정되었다¹⁷⁾. 그 후, 이민취급인을 통하지 않고 도항하는 자유이민이 주류가 되었다. 이처럼 이민보호법이 성립된 시기와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가 적힌 1910년대에는 이민의 도항 상황이 다르고, 내용도 이민취급인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로 인식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를 보면 “이민 사업의 발달이 국가 특히 정부의 지도 후원에 의한 부분이 지극히 크다”라며, 국가가 주도하여 이민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⁸⁾. 또 연안협의회가 이민법규 개정의 모델로 인용한 이탈리아의 이민법은 ‘이민의 지도 보호의 정신’이 기본에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이민’은 “원대한 목적을 품고 해외로 발전하는 자”라고 인식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⁹⁾. 한편 일본의 이민보호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민취급인·이민회사의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민’도 “빈곤 궁핍의 결과 국외로 돈을 벌러 가는 기민(棄民)”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며, 이민보호법의 방향성, ‘이민’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²⁰⁾.

또 1910년대의 이민과 그 이전의 이민에 대해, 과거에는 ‘강건한 체력’, ‘근면한 노력’, ‘유순한 성질’과 같은 ‘단순한 자격’으로 충분했지만, 1910년대에는 “이주국의 풍습과 국민정서에 공감하고, 정치, 교육,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우수한 시민으로서의 소질 훈련”을 가진 국민·민족이 요구되고 있다며, ‘동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를 중요시하고 있다²¹⁾. 이들을 바탕으로 이민법규 개정의 요강으로서 다음 9가지를 들고 있다.”하나, 이민에 대한 법률의 정신을 개정할 것”, “하나, 적극적 지도 보호를 법률의 근본으로 할 것”, “하나, 이민 행정기관의 완비를 도모할 것”, “하나, 이민평의회 또는 지방이민의원회를 설립하여 민관협력의 길을 열 것”, “하나, 이민의 지도 보호에 필요한 일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조항을 만들 것”, “하나, 이민기금제를 도입할 것”, “하나, 이민의 보호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단체를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하나, 병역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할 것”, “하나, 이민법 시행세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실제 활용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²²⁾. 이 중 병역관계는 이후 이중국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개칭되었다. 국가 주도의 이민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이민보호법을 개정하고 이민에 대한 ‘지도 보호’와 이민단체 지원,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을 담으려 하였다. ‘지도 보호’를 거듭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 이민을

16) 동상.

17) 기무라 겐지, 「제1장 근대 일본의 출이민사」, 『일본인과 해외이주이민의 역사·현황·전망』, 2018, 아카시서점, 2018, 39쪽.

18)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 전게서, 2쪽.

19) 동상, 3쪽.

20) 동상, 3~4쪽.

21)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 전게서, 8쪽.

22)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 전게서, 9쪽.

교육함으로써 이주지 사람들과 동화·공존하게 하여 배일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같은 시기에 일본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이민협회에서도 나왔으며, 이 협회는 실제로 요코하마에 강습소를 설립하여 이주지의 관습 등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²³⁾. 또 북미와 호주에서 일본인 이민이 ‘지나인 이민의 불명예’를 입는 것은 ‘서구인’의 동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큰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한 이민으로의 ‘지도’ 역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⁴⁾. 연안협의회가 이민 지도라는 ‘교육’을 중시해 그 관점에서 이민보호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동양인’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왜 ‘교육’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다. 같은 동양인인 중국인 이민에 대해 “지나인 이민과 같은 불명예”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본인>동양인’이라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일본이민협회의 회장을 지낸 오쿠마 시게노부가 제창한 동서 문명 조화론의 맥락에서도 일본인 이민은 “민족으로서의 위치는 아직도 지나인, 조선인, 인도인의 열”에 놓여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등, 다른 동양인을 경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⁵⁾. 일본·일본인이 다른 동양인과 마찬가지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도’가 강조된 것은 아닐까.

결국 이민보호법은 그 후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민교육 자체는 내무성 주도로 요코하마·고베·나가사키에서 강습소가 열리거나 도도부현에 해외협회가 설치되어 이를 감독하는 해외협회중앙회가 설립되는 등, 주장의 일부는 실현되고 있다.

4. 정리·과제

이번 보고서는 연안협의회가 제출한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를 통해 연안협회가 어떤 방침을 가진 조직인지를 검토하였다. 특필할 것은 ①국가가 주도하는 이민사업, ②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이민보호법의 개정, ③‘지도’라는 이민교육에 의한 동화, 이 3가지일 것이다. 이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민보호법 개정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국가에 의한 ‘이민교육’과 해외협회 설치 등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1924년 이른바 배일이민법이 성립되는 등, 인종·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였다.

향후의 과제로서 연안 협의회가 요코하마·고베·나가사키의 강습소 설립이나 해외 협회의 설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나가고 싶다.

참고문헌

- 東榮一郎 (2022年) 『帝國のフロンティアをもとめて 日本人の環太平洋移動と入植者植民地主義』名古屋大學出版會
 入江昭 (1967年) 「日米敵對意識の源泉」 『國際政治』 34号、國際政治學會.
 坂口滿宏 (2001年) 『日本人アメリカ移民史』 不二出版.
 日本移民學會編 (2018年) 『日本人と海外移住 移民の歴史・現狀・展望』 明石書店
 荻原俊洋 (2002年) 『排日移民法と日米關係』 岩波書店
 荻原俊洋 (2006年) 『カリフォルニア州の排日運動と日米關係 移民問題をめぐる日米摩擦, 1906~1921年』 有斐閣

(번역책임자: 김예진)

23) 아즈마, 진게서, 166~167쪽.

24) 「현행 이민법규 개정 건의 이유서」, 진게서, 8쪽.

25) 오쿠마 시게노부, 「대미문제」, 『동양경제신보』 제418호, 1907.07, 13쪽.